

콘크리트에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Q:** 레미콘 공장간에서의 代納을 여의없이 하게된 경우 어떤점에 유의하면 좋겠습니까?

**A:** Batch Plant의 고장, 또는 타설현장의 집중등에 의해 타의 레미콘 공장에 출하를 의뢰하는 소위 대납이라는 Case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KS공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다음의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배합보고서의 제출 : KS제품의 레미콘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납입에 앞서 배합보고서를 구입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어, 대납되는 공장에서의 배합보고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 ② 연락불충분에 의한 Trouble 미연방지 : 연락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연락 Miss가 있었기 때문에 구입자가 요구하는 품질과는 다른 품질의 콘크리트가 납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수품과 같이 협의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레미콘공장간에 있어서도 레미콘사양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 충분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 ③ 콘크리트의 색의 차이 : 콘크리트의 색은 골재나 시멘트의 색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골재에 따라서는 약간의 단위수량차도 나오는 등 공장간에서 약간 배합이 다를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레미콘공장이 달라지면 콘크리트의 색도 달라진다고 생각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